



인간의 보편적 본능이 기록한 위대한 사람들의 삶

플루타르코스에서 포스트식민주의 작가들까지

김옥동 | 서강대 영문과 교수

서구문학사에서 평전의 뿌리는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서 찾을 수 있고,

현대적 의미의 전기는 18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 서구의 전기문학은 일대 전환점을 맞이했다.

전기와 소설의 전통적인 경계선이 붕괴됐고, 제3세계 작가들의

전기가 포스트 식민주의 입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동양과 서양을 굳이 가리지 않고 전기나 평전은 다른 문학장르와 마찬가지로 그 역사가 꽤나 오래다. 이처럼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려는 충동은 어찌 보면 보편적인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왕들의 행적을 등에 새겨 놓았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스펙트럼 펼쳐며 발전해

그런데 서구에서 전기나 평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영웅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영웅전과 만나게 된다. 기원후 1~2세기경 옛 그리스의 역사가 플루타르코스가 그리스와 로마시대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생애를 기록한 《영웅전》은 그 첫손가락에 꼽힌다. 영웅전 하면 곧 플루타르코스를, 플루타르코스 하면 곧 영웅전을 떠올리게 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은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줄리어스 시저》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아테네의 타이몬》 같은 희곡 작품을 쓰는 데 그야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만약 이 《영웅전》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셰익스피어는 그 유명한 사극을 아예 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중세기에 이르러 전기는 성인전(聖人傳)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12세기와 13세기에 걸쳐 널리 유행한 성인전은 글자 그대로 성인들이 행한 기적과 순교를 적어놓은 전기다. 성인전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했다기보다는 전설적이고 신비스러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또한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씌어진 만큼 성인들의 행적을 과장해 말하거나 아름답게 미화한 흔적이 많이 엿보인다.

현대적 의미의 전기나 평전은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영국의 문필가 새뮤얼 존슨이 영국 시인들의 삶을 기록한 《시인전》(1779~81), 그리고 존슨의 생애를 기록한 제임스 보스웰의 《존슨의 생애》(1791)는 전기문학을 한 단계 올려놓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 두 전기는 18세기 이후 전기작가들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전범을 보여준 작품이라 할 만하다.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와 전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 이전의 전기와 비교해 좀더 객관성과 사실성에 무게를 실는다. 전기의 양도 전보다 훨씬 방대해지고 그 내용도 훨씬 학구적 성격을 띄게 됐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나 평전이 대중문학의 한 형태로 자리잡게 된 것도 바로 이 무렵의 일이다. 학구적 전기와 달리 이 유형



현대적 의미에서 전기문학의 전형을 창조한 새뮤얼 존슨

의 전기는 일반독자들이 재미로 읽을 수 있도록 흥미본위로 기술한다.

이 무렵 전기는 문학작품에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소설의 구성에 끼친 영향은 실로 크다. 가령 영국의 브론테 자매는 자신이나 그 주변인물의 전기를 작품에 적극 활용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일인칭 화자를 등장시켜 플롯을 전개하는 자서전적 소설이 이 무렵에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20세기에 이르러 전기나 평전은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는다. 전기와 소설의 전통적인 구별은 이제 더 이상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됐다. 소설로 분류해야 할지, 아니면 전기나 자서전으로 분류해야 할지 애매한 작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현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들어와 더욱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 소설가 트루먼 커포우티의 《냉혈》(1966)은 아마 이런 경우를 보여주는 좋은 작품일 것이다. 흔히 '논픽션 소설'이라고 일컫는 이 작품에서 커포우티는 미국



전기·자서전과
소설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작가로 평가받는
토니 모리슨

캔사스 주 한 농가에서 실제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을 핵심 소재로 삼는다. '실화'라는 부제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이 작품은 '픽션'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적인 소설이 내세우던 허구성의 벽을 무너뜨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최근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식민주의의 거센 물결을 탄 제3세계 작가들의 활동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가운데에서도 아프리카 작가들의 활동이 눈길을 끈다. 치누아 아체베, 응구기 와 티옹고, 월 소잉카 같은 작가들이 포스트식민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 꼽힌다. 그들은 하나같이 전기적이고 자서전적인 요소를 즐겨 작품에 끌어들이는다. 그들에게 전기나 자서전은 한 인간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과 민족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방법이자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다섯가지로 분류되는 전기문학

이런 사정은 미국에서 활약하는 소수민족 작가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령 제임스 블드윈과 진 투머 그리고 최근 노벨문학상을 받은 토니 모리슨 같은 흑인작가들은 전기/자서전과 소설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작가로 평가받는다. 이밖에도 맥신 흥 킹스턴 같은 중국계 작가들과 한국계 작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에게 구체적인 삶에 뿌리를 박고 있는 전기나 자서전이야말로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차별받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생존에 필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나 평전은 흔히 다섯 가지 목표를 지니고 있다.

첫째, 전기란 한 인간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 씌어진다. 여기에서는 때로 서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문학적 서술을 최소로 줄인 채 단순히 자료를 수집해 놓는 경우도 있다. 전기가 본격적인 문학형태로 발전하기에 앞서 초기형태의 전기는 거의 대부분 이 갈래에 속한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은 바

로 이러한 형태의 전기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이다.

둘째, 전기는 일반인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씌어진다. 예를 들어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유명배우나 운동선수들의 전기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대중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만큼 이 갈래의 전기에서는 흥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뇌살적인 모습으로 못 남성의 관심을 끌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의 전기, 흔히 미국 록음악의 황제로 일컫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기, 존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당한 뒤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 결혼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의 전기 등 이 갈래의 전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아주 많다.

셋째, 전기는 창조적 삶이나 공적 삶을 설명하기 위해 씌어진다. 이 전기는 작가나 예술가 또는 정치가의 개인적 삶을 조명함으로써 그들의 작품이나 업적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발판으로 삼는다. 내면세계에 감춰진 동기가 심리적 원인을 파헤침으로써 겉으로 드러난 외부 사실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이 전기는 심리적 측면에 무게를 실는다. 문학전기로서는 리처드 엘먼이 쓴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전기와 제임스 조이스의 전기, 칼로스 베이커가 쓴 어니스트 헤밍웨이 전기, 조지프 블로트너가 쓴 윌리엄 포크너 전기가 흔히 꼽힌다. 위대한 정치가를 다룬 전기로서는 미국 시인 칼 샌드버그가 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전기가 있다.

넷째, 전기는 한 시대나 운동을 조명하기 위해 씌어진다. 이 경우 한 개인의 삶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가 살았던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을 준다. 이 갈래의 전기에서 개인은 시대라는 거대한 기계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부품의 역할을 맡는다. 이를 테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미국 작가 존 스타인벡처럼 1930년대 활약한 사람들의 전기는 흔히 '붉은 10년'이라고 일컫는 미국 경제 대공황을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열쇠가 된다. 그런가 하면 1950~60년대에 활약한 미국 작가 J. D. 샐러저나 흑인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에 관한 전기는 이 무렵 미국을 중심으로 열병처럼 번져나간 청년 문화와 반문화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된다.

다섯째, 전기는 어떤 논제나 주장을 예증하기 위해 씌어지기도 한다. 하느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쓴 성인전은 이 갈래의 전기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 꼽을 만하다. 헤겔의 전기는 19세기 중엽 유럽을 휩쓸던 관념론과 형이상학을 논증하기 위한 전기인가 하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전기는 헤겔에 맞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논증하기 위한 전기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에 관한 전기는 두말할 나위 없이 그 동안 암흑 속에 갇혀 있던 인간 무의식을 파헤친 정신분석 이론을 예증하기 위한 전기라고 할 만하다. 위대한 사상가의 전기는 대개 이 범주에 속한다.●